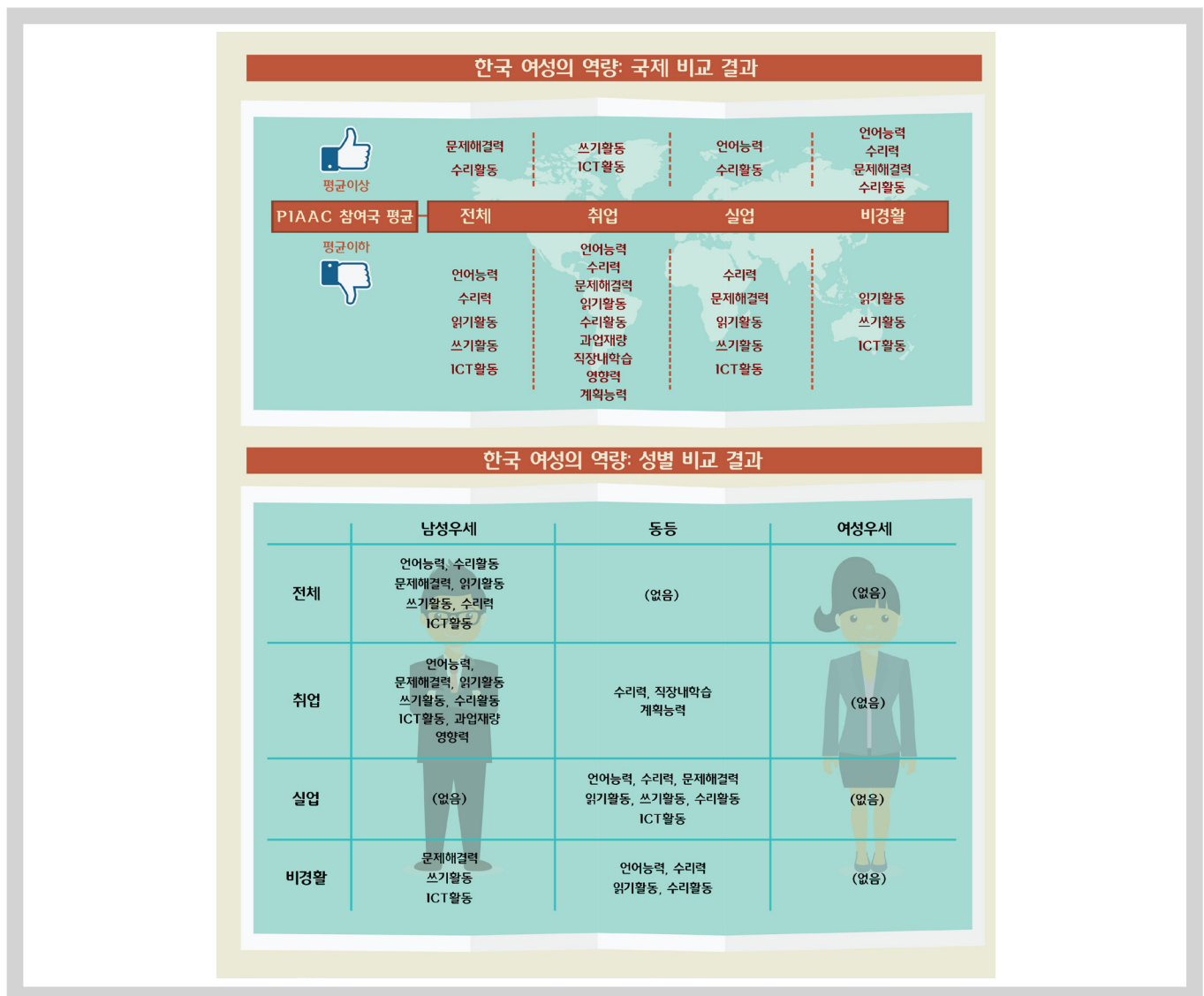


#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취업 및 비취업 여성의 역량 실태와 과제 과제책임자 최윤정 부연구위원 (Tel:02-3156-7176 / e-mail:cyj@kwidmail.re.kr)

## 한국 여성의 역량: 성별·국가별 비교분석 결과\*

“ 한국 여성의 역량, 남성보다 높은 영역 하나도 없어 성별 격차 심각  
 취업 여성의 역량 비취업 여성보다 낮아  
 4차 산업혁명에 앞서 한국 여성의 ICT 역량은 OECD 최하위 ”



**KWDI**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최윤정 · 정해숙 · 반가운 · 김상미(2016). 취업 및 비취업 여성의 역량 실태와 과제.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기술과 지식의 빠른 진보는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역량을 개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인력정책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음. 이에 본 연구는 OECD PIAAC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우리나라 여성들의 역량 및 역량활용 수준과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였음.
- 분석 결과, 한국 여성들은 OECD 국가 중에서는 드물게 취업 여성의 역량이 비취업 여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고역량 여성은 비취업 상태에 저역량 여성이 취업 상태에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역량의 관점에서 여성의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되고 있음을 드러내줌.
- 전체 여성, 취업 여성, 실업 여성, 비경활 여성 중 어떤 집단에서도 여성의 역량 및 역량활용 수준이 남성보다 우세한 영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역량에서의 심각한 성별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직종별 분석 결과, 한국 여성들은 참여국 여성 평균 및 한국 남성과 비교했을 때, 직업지위가 낮은 직종에서 역량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역량의 하향 평준화 현상을 보이며, 특히 관리직의 경우에는 낮은 역량 수준 비해 직장에서의 역량 활용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아 역량과 역량활용 간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 여성의 ICT 수준은 세계 최하위일뿐 아니라, 남성과의 격차 또한 다른 역량 영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취업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고역량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재직 여성에 대한 학습지원 강화, 관리직 여성의 역량 강화 지원, 비인지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장 내 조직문화 개선을, 비취업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고역량 비취업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중고령층 여성의 기초 역량 강화를, 취업 및 비취업을 포괄하는 전체 여성에 대해서는 ICT 역량의 강화와 직업관련 평생학습의 촉진을 제안하였음.

## 1. 배경 및 문제점

- ④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이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변화 또한 불가피하게 함.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지식의 변화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마저 낡은 것으로 만들어버림에 따라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인력정책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음.

- ❖ 그러나 역량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OECD PIAAC에 의해 확인된 한국 여성의 실제 역량 수준은 경쟁국과 비교해 그다지 높지 않으며, 남성과의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는 점임. 이러한 한국 여성들의 낮은 역량 특성은 경제활동 상태와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하다는 보고가 있어 여성인력의 활용과 배분에 문제의식을 더함.
- ❖ 이에 본 연구는 OECD PIAAC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우리나라 여성들의 역량 및 역량활용 수준과 실태를 분석하고, 여성 역량의 결핍지점을 파악하는 한편, 국제 수준에서 한국 여성들의 역량을 진단함으로써 여성 역량 개발의 정량적 논거와 정책 개입 지점을 발굴하고자 함.

## 2. 분석결과

### 취업 및 비취업 여성의 역량실태

- ❖ 한국 여성의 역량 및 역량활용 수준은 경쟁 국가들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
  - ▶ 한국 전체 여성의 역량은 언어능력은 16위, 수리력은 15위, 컴퓨터기반 문제해결력은 14위로 모두 10위권 밖이며, 일상생활에서의 역량활용 수준도 수리활동(8위)만 참여국 평균을 상회하며, 읽기활동, 쓰기활동, ICT활동은 모두 참여국 평균에 미달임.
- ❖ 여성 역량의 취약함은 취업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 ▶ 우리나라 취업 여성들의 역량수준은 언어능력 19위, 수리력 18위, 문제해결력 18위로 22개 참여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역량활용 또한 쓰기활동(1위)과 ICT활동(10위)을 제외하면 나머지 6개 역량활용 변수들은 모두 참여국 평균에 미달임.
  - ▶ 특히, 과업재량, 직장 내 학습, 영향력, 계획능력과 같은 비인지적 역량활동은 참여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한국 남성들의 비인지적 역량활동 또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한국의 조직문화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음.
- ❖ 비취업 여성(실업 여성 및 비경활 여성)들의 인지적 역량 수준은 낮지 않은 반면, 일상에서 이들 역량을 활용하는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이는 비취업 여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일상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표 1〉 한국 여성의 역량: 국가간 비교

집단	비교 유형	역량			역량활용							
		언어 능력	수리력	문제 해결력	읽기 활동	쓰기 활동	수리 활동	ICT 활동	과업 재량	직장내 학습	영향력	계획 능력
전체	순위	16	15	14	18	13	8	20				
	참여국 평균대비	L	L	H	L	L	H	L				
취업	순위	19	18	18	12	1	15	10	16	22	19	20
	참여국 평균 대비	L	L	L	L	H	L	H	L	L	L	L
실업	순위	4	10	18	13	17	9	20				
	참여국 평균 대비	H	L	L	L	L	H	L				
비경험	순위	5	8	10	17	16	7	18				
	참여국 평균 대비	H	E	H	L	L	H	L				

주1) 문제해결력의 순위는 역량점수가 아닌 2-3수준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

주2) 한국 여성의 역량이 참여국 평균 보다 높으면 H로, 낮으면 L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같으면 E로 표기

📍 한국 여성들은 역량 및 역량활용에서의 심각한 성별 격차를 보이고 있음.

- ▶ 본 연구에서는 전체 여성, 취업 여성, 실업 여성, 비경험 여성에 대해 각각 3개 역량변수 및 4개 역량활용(취업여성은 8개) 변수를 분석하였음. 그러나 분석결과, 어느 집단에서도 여성의 역량 또는 역량활용 수준이 남성보다 높은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음.
- ▶ 역량의 성별 격차는 취업 여성에게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그동안 비취업 또는 실업 여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취업 여성에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줌.

〈표 2〉 한국 여성의 역량: 남성 대비 성차(격차비율)

집단	비교 유형	역량			역량활용							
		언어 능력	수리력	문제 해결력	읽기 활동	쓰기 활동	수리 활동	ICT 활동	과업 재량	직장내 학습	영향력	계획 능력
전체	%Diff.	2.3*	4.0*	2.1*	6.7*	1.8	0.5	11.9*				
	Adj. %Diff.	1.8*	3.2*	2.8*	5.9*	5.1*	2.7*	11.5*				
취업	%Diff.	1.8*	3.3*	1.2	11.8*	3.4	14.6*	13.4*	12.2*	-0.8	7.2*	6.0*
	Adj. %Diff.	1.6*	2.8*	2.3*	16.8*	6.6*	20.2*	17.1*	10.1*	1.2	11.5*	5.6
실업	%Diff.	3.7	5.8	5.4	5.2	-1.9	8.6	36.8*				
	Adj. %Diff.	1.5	3.7	3.2	2.7	-2.7	2.8	19.3				
비경험	%Diff.	1.2	3	7.7*	0.6	15.1*	8.4	39.7*				
	Adj. %Diff.	0.5	2.6	6.6*	-1.7	15.2*	2.7	34.7*				

주1) %Diff(격차비율)는 여성과 남성의 역량 격차를 여성을 기준으로 백분율로 환산한 값임. 역량과 역량활용 간 척도가 상이하어 이를 비교하기 위해 산출

주2) Adj.%Diff(조정된 격차비율)는 주요 인구학적 배경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 Diff(격차비율)를 산출한 값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I 장 3절 참조.

주3) \*표기 및 볼드체는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에 표기

📍 특히, 한국 여성들의 ICT 활동 수준은 국가간 비교에서도 최하위일 뿐 아니라, 남성과의 성별 격차 또한 매우 높고, 여성 내에서도 편차가 커서 역량의 양극화가 관찰됨.

-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의 획득과 유지를 위해서라도 여성의 ICT 역량 강화에 관심을 두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직종별 · 산업별 여성의 역량실태와 미스매치

- ④ 직업지위가 낮은 직종에서 여성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고, 직업지위가 높은 직종에서의 역량은 취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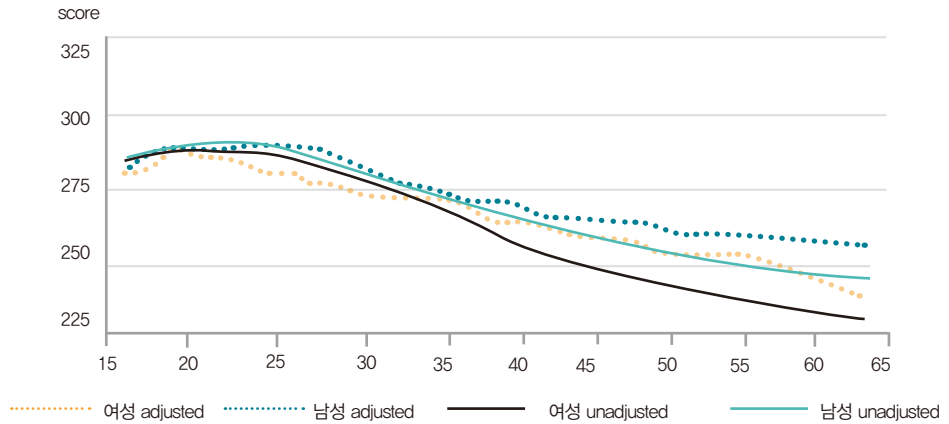
  - ▶ 대부분의 직종에서 한국 여성의 역량은 한국 남성보다 낮으나, 직업지위가 가장 낮은 단순 노무직에서는 남성보다 높음. 또한 참여국 여성의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직업지위가 높은 관리직, 전문직, 기계 및 관련 전문가, 기능원 및 관련 전문가에서는 참여국 여성이, 나머지 직종에서는 한국 여성의 역량이 더 높음.
- ④ 관리직 여성의 경우, 역량 수준과 역량활용 간의 괴리가 발견됨. 한국의 관리직 여성은 낮은 역량 수준에 비해 역량활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이는 관리직 여성이 그들의 실제 역량보다 더 많은 역량을 요구받고 있다는 의미임.
- ④ 산업별 여성 역량의 특성은 O·P·Q(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교육·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에서 여성의 역량이 참여국 평균 수준보다 낮고, 남성과 비교했을 때에는 F(건설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낮은 것으로 확인됨.
- ④ 직종별 미스매치 분석 결과, 참여국 여성과 비교해서는 역량 과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 남성과 비교해서는 역량 과잉 수준이 낮고, 오히려 역량 적정과 역량 과소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 관리직 및 전문직, 단순노무직, 사무종사자에서 여성 역량의 적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적정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적정비율은 65.6%로 심각한 수준임.
  -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의 경우, 역량 과잉비율이 24.0%이며, 역량 과소 비율 또한 10.4%로 미스매치가 가장 심각한 직종인 것으로 파악됨.
- ④ 산업별로 여성의 역량 미스매치가 높은 산업군은 G·H·I(도소매 유통·운수 및 보관·숙박 및 음식점업), B·C·D·E(광업·제조업·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수도, 하수, 폐수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R·S·T·U(예술, 엔터테인먼트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기타 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해외기관, 조직활동)로 나타나며, 이들 산업군은 모두 여성의 역량과잉 비율이 높은 반면, J(정보처리 및 커뮤니케이션)의 경우에는 여성의 역량과소 비율이 높아 해당 산업군에서 여성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함.

## 여성의 역량 특성과 성과

- 📍 한국 여성은 22개 PIAAC 참여국 중에서 연령대별 역량의 격차가 가장 큰 국가임.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성차가 심화된다는 것이 특징임.

[그림 1] 한국의 성별 연령-역량 프로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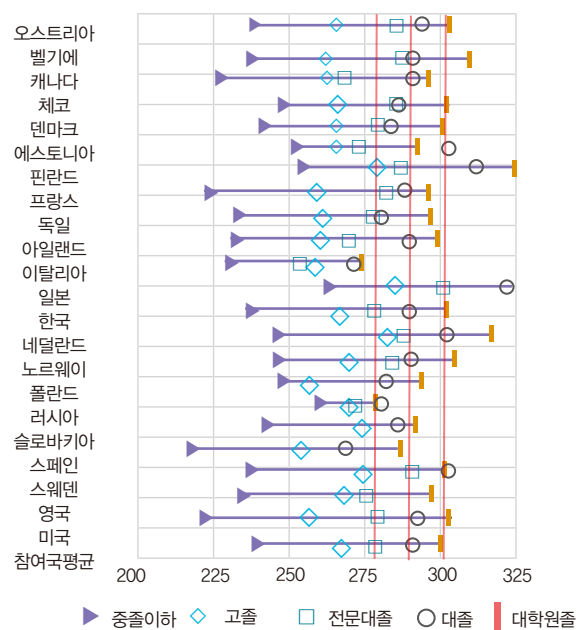


주1) 역량은 언어능력을 사용, 곡선은 다항식(cubic specification)으로 추정

주2) 수정된 점수는 교육년수와 경제활동상태를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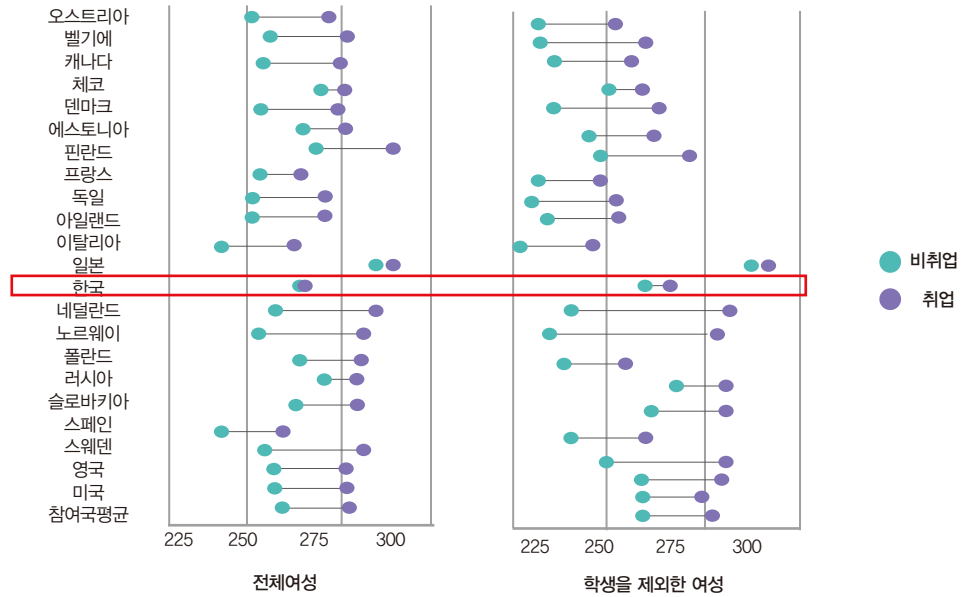
- 📍 우리나라 여성의 학력별 역량 수준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특히, 일본이나 핀란드와 같은 고역량 국가들과 비교해서 학교급 한 단계 이상의 격차를 보임.

[그림 v-3] 여성의 학력별 언어능력 격차



- 📍 한국은 취업 여성의 역량이 비취업 여성보다도 낮은 유일한 국가이며, 학생 집단을 제외한 분석에서는 취업 여성의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타 국가와 비교해서 그 격차가 상당히 미미한 수준임.

[그림 2] 여성 취업자와 비취업자 간 언어능력 격차



- ▽ 평생학습 참여 결과가 여성의 역량과 노동시장 성과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서 직업관련 평생학습 참여가 모든 분석 집단에서 유의하게 나타남.
-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비교국가 중 유일하게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고학력, 고역량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 ▽ 여성의 역량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경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아니나, 직업이나 임금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3. 정책제언

#### 취업 여성의 역량 강화

- ▽ 고역량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

  - ▶ 여성의 경력유지를 통한 고역량 여성들의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일가정양립 정책을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시행하는 정책들이 보편화되도록 일선 기업들의 일가정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민간 기업의 일·가정양립 유인책을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 및 파급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 재직 여성에 대한 학습 지원 강화

  - ▶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경우, 타 OECD 국가들과 달리 취업 여성의 역량이 비취업 여성의 역량 보다 낮다는 것을 확인시킴으로써 취업 여성에 대한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드러냄.
  - ▶ 그동안 여성의 역량 지원은 비취업 여성이나 실업 여성에 집중되어 취업 여성의 역량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음.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선입관을 반전시킴으로써 취업 여성의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보여줌
  - ▶ 여성 근로자들의 학습 장애 요인을 파악하는 등 학습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관리직 여성들의 역량 강화 지원

- ▶ 실제 역량 수준에 비해 직업세계에서 훨씬 더 많은 역량활용을 요구받는 것으로 확인된 바, '여성인재아카데미'등을 활용하여 관리직 여성들의 핵심역량 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 일반적 역량활용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의 개선

- ▶ 여성뿐 아니라 남성 또한 직장내 학습, 과업재량, 영향력, 계획능력과 같은 비인지적 역량활용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남. 이는 우리나라 사업장들이 역량이 충분히 개발, 발휘되기 어려운 조직문화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직문화의 개선이 요구됨.

## 비취업 여성의 역량 강화

### 📍 고역량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 ▶ 이미 이탈한 고역량 여성들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고역량 여성들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새일센터나 고용센터의 정보 수집력 및 알선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함.

### 📍 중고령층 여성의 기초 역량 강화

- ▶ 한국은 OECD 국가 중 여성의 연령대별 역량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나타났음.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마련이 필요하며, 일부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핵심역량 교육을 자격화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할 만함.

## 전체 여성의 역량 강화

### 📍 여성의 직업관련 평생학습에의 참여 촉진

- ▶ 평생학습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역량 수준이 유의하게 높고, 평생학습은 학력과 더불어 성인의 역량을 결정하는 중요변수로 확인됨.
- ▶ 여성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에 있어 한국 여성들의 개인관심 위주의 학습 보다는 직업관련 평생학습에의 참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특히, 고역량 여성들이 재취업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훈련의 전문성 제고가 요청됨.

### 📍 여성의 ICT 관련 역량 강화

- ▶ 현대사회에서의 필요역량 중의 하나는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IT 기술을 활용하는 역량이나, 한국 여성들의 ICT 수준은 경제활동상태와 상관없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이러한 경향은 실업 및 비취업 여성에게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으로 ICT 기술이 중요해지는 향후 노동시장 전망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성의 ICT 역량 강화는 필수적임.

### 출처

최윤정 · 정해숙 · 반기운 · 김상미(2016). 취업 및 비취업 여성의 역량 실태와 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경력단절지원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계부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인적자원개발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